

도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시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

-일본 지방도시의 최근의 경험으로부터-

Necessity of formation of urban networks for sustainable
vitality of cities : from the recent experience of Japanese
provincial cities

日野正輝 (日本, 東北大学)

Masateru HINO(Tohoku University, Japan)

I. 서론

일본 사회는 현재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일본의 인구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에 급증하여 2000년에는 1억2천7백만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이후 급격한 출생률의 저하로 2004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바뀌었다. 장래 인구 예측에 의하면 일본인구는 2050년에는 9천5백만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그 사이에 고령화가 진행되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00년 17%에서 2050년에는 40%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및 인구구조의 변화는 당연히 큰 사회변동을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일본으로서는 처음으로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시의 모습을 포함하여 일본사회의 모습을 예측하기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회의 부분적 측면이라도 장래상을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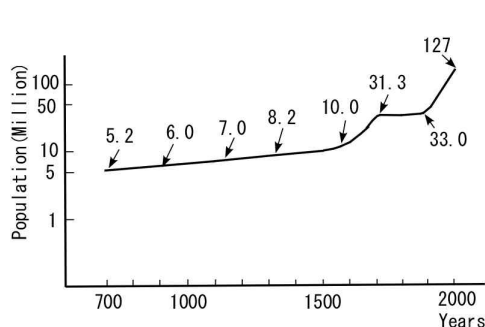
본 보고에서는 우선 1)향후 일본 지방도시의 모습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는 소자녀 고령화의 동향과 경제의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하여 개관한다. 또한 2)그러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정부의 주된 시책과 지역개발에 대한 국민 의식의 변화에 대하여 소개한다. 그리고 3)최근 지방도시의 활성화에 대한 사례로서 아이즈와카마츠시의 활동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4)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이 도시의 활력을 보관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싶다.

II. 소자녀 고령화와 경제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진전

1. 소자녀화 고령화의 움직임

일본인구는 과거 천수백년 동안 전체적으로 계속 증가해 왔다. 특히 19세기말에서 20세기말에 걸쳐 4배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2007년 현재 일본인구는 증가에서 감소로 변하고 있다. 게다가 인구 감소는 향후 한층 현저해 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것은 소자녀화의 경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가 노년인구에 속해지기 때문에 노년 인구 비율이 급증하게 되어 있다. 2000년의 노년인구비율은 17.4%였지만 2030년에는 30%가 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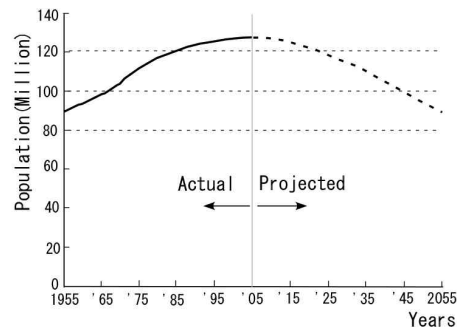
이러한 일본인구의 동향은 큰 지역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년인구가 많은 대도시권에서의 인구 감소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청년 인구를 대도시에 전출시킨 지방에서는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게 된다. 2030년 추계 인구가 2000년 인구보다 큰 시읍면은 전국 3,245개 시읍면중 불과 431개(13%)이다. 그러나 이런 시읍면도 대부분 대도시 및 지방의 주요 도시의 교외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지방에서는 현청 소재 도시차조차도 인구가 감소한다.



第1図 日本人口の長期推移

Long-time change in Japanese pop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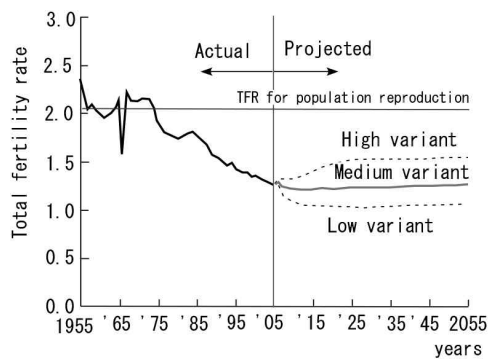
Source: The plan and coordination bureau of National Land Agency ed. (1984): The Perspective of Japan in the 21st Century, P.9.



第2図 日本の将来人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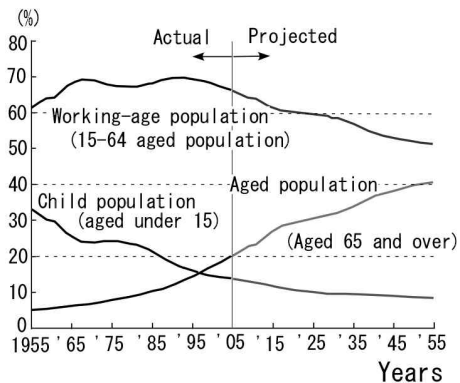
Actual and projected population of Japan, 1955-2055

Source: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06): Population Projections for Japan (December, 2006)



第3図 日本の合計特殊出生率の推移
Actual and Projected Total Fertility
Tate, 1955-2055

Source: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06): Population Projections for Japan (December,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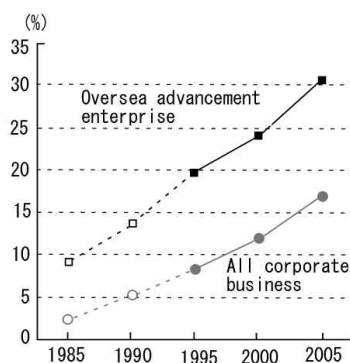


第4図 日本の人口構造の変化
Trends in the composition of major
age groups, 1955-2055

Source: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06): Population Projections for Japan (December, 2006)

2. 경제의 글로벌라이제이션

지방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경제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면, 일본 제조업 기업의 해외 생산 비율은 1985년 2.4%에서 2005년 17.0%로 급증하고 있다.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제조업 기업에 한정하면 1985년 9.2%에서 2005년 31.2%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자동차 생산업체 8사가 2006년에 생산한 총자동차 대수의 49%는 해외에서 생산되었다.



第5図 日本メーカーの海外生産

The offshore production ratio of Japanese
manufactures

Sourc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ed. (2007):

Offshore Business Activities of Japanese Enterprises, No. 36

第 1 表 日本の海外直接投資の特徴
Characteristics of FDI of Japan

Country	Stocks of FDI in 2006		(A) / (B) (%)
	Inward (A)	Outward (B)	
Japan	107,633	449,567	23.9
Korea	70,974	46,760	151.8
China	292,559	73,330	399.0
US	1,789,087	2,384,004	75.0
UK	1,135,265	1,486,950	76.3

Note: The Unit of FDI is Million of Dollars

Source : UNCTAD (2007) : World Investment Report 2007

구미 제조기업의 해외 생산 비율은 일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일본 메이커의 해외 생산 비율도 향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기업의 해외투자를 보충하는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없으면 국내 투자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해외로부터의 일본에 대한 투자는 일본 기업의 해외투자에 비해 현저히 작은 것이 실상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단기간에 개선될 전망은 없다.

Ⅲ. 정부의 대응과 국민 의식의 변화

일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소자녀(저출산)화 고령화에 의한 인구감소 및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비한 사회제도의 정비 및 지역 진흥책을 진행하고 있다. 주된 시책을 중장기적인 정책과 즉효성이 기대되는 지역진흥책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1. 중장기적 정책

1) 남녀 공동 참가 사회 기본법(1999년 제정)

남녀 공동 참가 사회 기본법은 남녀 사이의 사회적 평등과 함께 여성이 일하면서 육아를 할 수 있는 사회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개호보험법(1997년 제정, 2000년 시행)

개호보험법은 증가하는 고령자의 개호를 가정과 함께 지역에서 담당하기

위해서, 시읍면 혹은 광역 연합 등의 지역 단위에 개호보험자를 조직하여 개호 서비스를 공비와 보험료 수입에 의해 제공하는 것이다.

3) 지방분권 일괄법(1999년 제정)

지방분권 일괄법은 주민에게 친밀한 행정을 가능한 한 지방공공단체에 이관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및 역할 분담을 재검토할 방향을 지시한 법률이다.

4) 시읍면의 합병 촉진(1995년 시읍면 합병 특별법 개정, 「헤세이의 대합병」이라고 불리고 있다.)

시읍면 합병 촉진은 개호보험, 지방 분권화 등에 대응하여 지방공공단체의 재정력 기반을 강화할 필요 때문에 진행되고 있다. 전국의 시읍면수는 1999년 3월말 3,232개였지만, 2007년 10월에는 1,823개가 되었다. 시읍면을 통합하여 도도부현제 대신, 전국을 8-11 블록으로 구분하는 도주제로의 변경이 논의되고 있다.

5) 국토 형성 촉진 기본법(국토종합개발법의 개정, 2005년)

국토 형성 계획법은 국가가 지역개발 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종래의 방식에서, 국가가 책임을 가지는 전국 계획 부분과, 지방이 자립적으로 개발 계획을 책정하여 시행하는 광역지방계획 부분으로 나누어 개발행정의 분권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즉효성이 기대되는 지역 진흥책

1) 중심 시가지 활성화법(1998년 제정)

중심 시가지 활성화법은 교외의 대형 소매점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 개발에 의한 중심시가지의 쇠퇴를 방지하고 재생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률이다. 중심 시가지 활성화의 추진 기관으로서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가 제도화되었다.

2) 도시 재생특별 조치법(2002년 제정) 및 지역 재생법(2005년 제정)

도시 및 지역이 스스로 개발 지구를 지정하고 환경 정비 계획을 세워 그것을 정부가 인가·지원하는 것으로, 지역 진흥을 도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3) 도시 계획법 개정(2006년 개정)

이 개정에 의해 대형점(바닥 면적 1 만㎡이상의 점포)의 입지 가능한 지구는 도시계획지역내의 상업지구,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구로 한정되고 교외 입지는 규제되었다.

3. 지역개발에 대한 사고의 변화

1) 양의 확대로부터 질 향상

소자녀화, 고령화 및 경제의 글로벌라이제이션 속에서 양적 확대를 요구하는 종전의 개발방식은 이미 필요 없게 되었다. 이를 대신할 대안으로서 삶의 질의 향상이 요구되었다. 도시계획에서 인구증가에 대응한 교외 개발에서 콤팩트시티로 전환.

2) 교류인구를 살린 활성화

정주인구의 감소에 따라 교류인구의 증가에 의한 지역활성화를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관광 진흥.

3) 지역 자원의 재검토

지역의 자연, 문화, 산업 자원을 재평가하고 그것들을 살린 지역 활성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높아졌다.

4) 주민참가의 도시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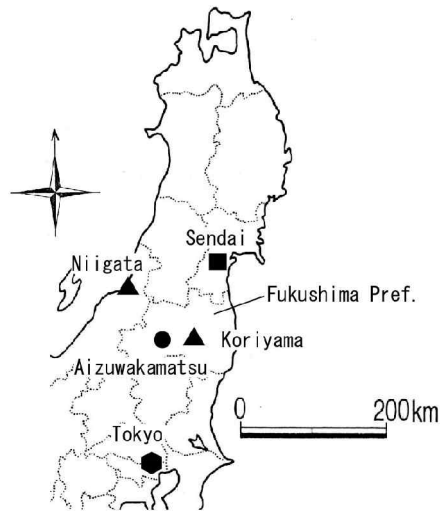
1990년대 이후 주민참가에 의한 「도시만들기」 및 NPO의 활동이 도시·지역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참가자의 정보교환 및 합의 형성을 위한 방법으로 워크숍의 보급.

IV. 지방도시의 대처-아이즈와카마츠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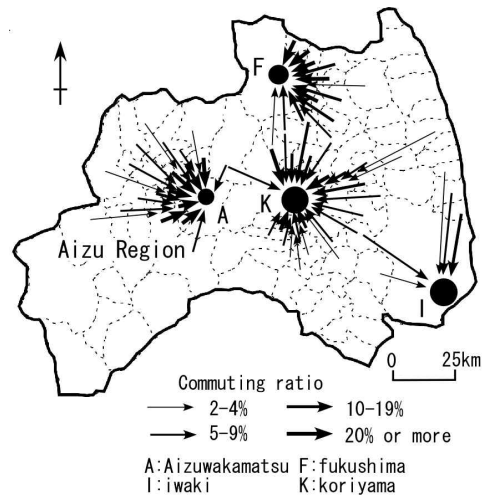
1. 아이즈와카마츠시의 개황

아이즈와카마츠시는 도쿄에서 북쪽으로 약200km에 위치하는 후쿠시마현 아이즈 지방의 중심도시이다. 아이즈 지방은 주위의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지역이다. 아이즈 지방은 역사적으로도 지역적 일체성을 만들어 왔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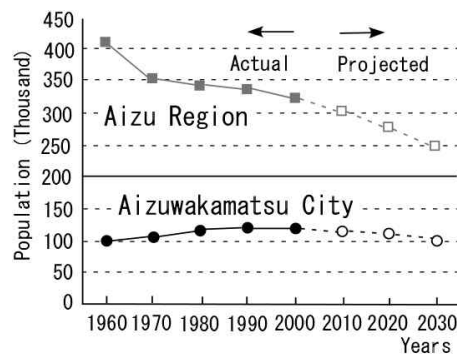
때문에 아이즈 지방의 주민은 지역에 대한 정체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즈 지방은 동북지방의 많은 농산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1950년대 이후 주로 젊은 층의 전출로 인하여 인구가 감소하였다. 아이즈 지방의 총인구는 1960년 41만명에서 2000년 32만5천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향후에도 계속 감소하여 2030년에는 약 24만명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第6図 会津若松の位置
Location of Aizuwakamatsu City



第7図 福島県の通勤圏
Commuting areas of four major cities
in Fukushima Prefecture



第8図 会津若松の人口推移
Population trends in Aizuwakamatsu City
and Aizu Region

아이즈와카마츠시는 상업 및 행정의 중심지, 철기 및 양조업의 산지 및 관광지였고, 1967년에 대기업 반도체 메이커인 후지쓰(주)의 공장 진출로 1995년까지는 인구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아이즈와카마츠시의 인구도 감소하였다. 2030년에는 1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다. 노년인구 비율은 1990년 9.8%에서 2000년 19.6%로 증가하였

으며 2030년에는 30.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이즈와카마츠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소개한 국가의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진흥책을 실시하여 왔다.

2. 아이즈와카마츠시의 주된 진흥책

1) 거리 보존·형성에 의한 「도시 만들기」 — 도시만들기 아이즈의 활동

아이즈와카마츠시에는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시, 상공회의소 및 민간기업의 출자로 이루어지는 「(주)도시만들기 아이즈」가 있다. 당사는 1998년 제정된 중심시가지 활성화법 속에서 제도화된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이다. 그 모체는 「도시만들기 연구회」와 「도시만들기 네트워크 협의회」이다. 전자는 1996년에 중심상가의 진흥책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던 청년회의소, 상공회의소 청년부, 대학교원, 행정직원으로 이루어진 스터디 그룹이었다. 후자는 도시만들기 연구회의 요청으로 결성된 상가 단위로 조직된 도시만들기 단체의 네트워크이다.

(주)도시만들기 아이즈의 사업 활동은 상점 경영의 지도, 점포의 유효 이용의 촉진, 이벤트의 기획·운영 개최 등 다방면에 이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 것은 중심시가지의 각 지구의 거리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회와의 제휴 활동이다. 거기에는 아이즈의 상업 및 거리경관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71년에 설립된 「아이즈 복고회(会津復古会)」의 운동, 1992년의 경관 조례 제정의 움직임이 있었다. 현재 시 및 (주)도시만들기 아이즈를 중심으로 한 거리 보존·형성의 대처방안으로는 거리의 산책을 즐기는 「도시 안에서의 거리 관광」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중심 상업지의 쇠퇴 현상을 막고, 옛날의 활기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리 보존 및 형성의 움직임은 확대를 보이고 있고, 타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 여기저기에서 보여 진다. 중심상업지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나누카마치 상가에는 아이즈와카마츠답게 연출하는 건물의 상점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 지구에서는 과거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던 통행자수도 증가하고 있다. 주말에는 시지도를 한 손에 들고 산책하는 여행자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도시 안에서의 거리 관광」이 정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정보 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한 관민학 협동 사례 - (주)아이즈 리에중

오피스의 개설

아이즈와카마츠시는 지방의 중소도시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IT산업, 특히 정보 서비스업의 육성에 산업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 (주)아이즈 리에중 오피스의 설치를 들 수 있다. 당사는 시(주식의 51%출자), 상공회의소, 민간기업 등을 주주로 하는 제3섹터의 기관으로 1998년에 설립되었다. 당사의 설립은 1993년의 후쿠시마현립 아이즈대학의 설립이 계기가 되었다.

아이즈대학은 IT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사이언스의 단과대학이다. 아이즈대학은 교원의 반수 가까이가 외국인이며 지역 및 산업계와의 제휴를 중시하는 개성적인 대학이다. 그 때문에 아이즈대학의 설립으로 산학연계에 의한 지역진흥을 기대되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지역 기업과의 연계가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거기서 제안된 것이 연계 방안 및 대학과 기업과의 중개 기관의 필요성이었다. 그리하여 (주)아이즈 리에중 오피스가 설립되었다.

당사는 프로젝트에 의한 산학 연계 및 개발자금 보조금의 신청서 작성 지원, 시장 개척, 경영지도 등을 통한 벤처기업의 육성과 지역의 IT기술자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 16개사(2001년 현재)가 입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아이즈 리에중 오피스의 지원을 받은 것이 적지 않다. 또한 그 중에는 아이즈대학의 졸업생이 설립한 소프트웨어 기업도 입지하고 있다.

그 외의 아이즈시의 IT산업 육성을 위한 활동에는 「아이즈산 IT기술 인증」 제도 및 IT기업의 유치 촉진책 등이 있다. 또 아이즈 리에중 오피스의 운영의 특징으로서 외부의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 아이즈 브랜드 창출 대책

이 사업은 아이즈와카마츠시와 아이즈와카마츠 상공회의소 등이 협력하여 아이즈가 뛰어난 소재나 기술의 생산품을 아이즈 브랜드로 인정하고, 농산물을 포함한 그 지방 생산품의 차별화와 판매 지원 및 아이즈의 지역 이미지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1년 7월에 아이즈 브랜드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2005년까지 약 100여개의 생산품이 아이즈 브랜드로 인정되고 있다.

4) 지방도시의 진흥에 요구되는 요건

① 아이즈와카마츠시는 역사가 있는 도시로서 도시경관의 보존·형성에서

가치를 찾아냄과 동시에 도시의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주민 참가를 유도하였다. 다시 말하면 도시활성화에 대하여 시민들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고 주민 참가와 협력을 중요하게 여겼다.

②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을 실행시키기 위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아이즈와 카마츠의 도시경관의 보존·형성 운동에는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다.

③많은 시민참가를 촉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아이즈와카마츠에서는 경관 조례에 의한 협정 지구의 설치 및 시의 장기종합계획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이 협동에 의한 거리만들기 방안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④지역의 자연·문화적 자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지역 진흥에 활용하는 지향성이 요구된다. 아이즈대학과의 제휴에 의한 IT산업의 육성, 아이즈 브랜드의 운동 등은 그 좋은 사례이다.

⑤도시 내외의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폭 넓게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그것을 살리는 것이다. (주)아이즈 리에종 오피스의 설치 및 활동은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⑥행정기관은 도시진흥과 관계되는 내외의 정보를 수집·활용하고 프로젝트를 기획·입안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V. 도시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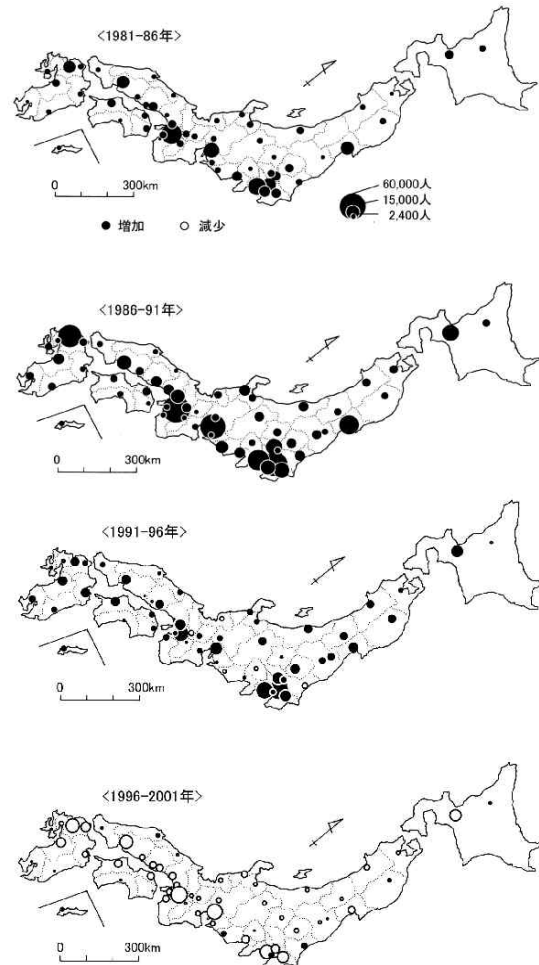
1. 도시 시스템의 구조 변화

일본의 지방 중추 도시(삿포로, 센다이, 히로시마, 후쿠오카) 및 현청 소재 도시는 1960년대 이후 도쿄, 오사카에 입지한 대기업의 지점이 집중·집적함으로써 지방 블록 및 현(県)지역에서의 중심성을 높여 왔다. 즉 지방 중추 도시에는 지방 블록을 영역으로 한 지점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결과, 그러한 도시는 지방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많은 현청(県庁) 소재 도시에는 지방 중추 도시 지점의 관할하에서 현 지역을 영역으로 하는 지점이 배치된 것으로 지방 중추 도시와의 사이에 계층 관계를 강하게 하여고 동시에 현 지역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높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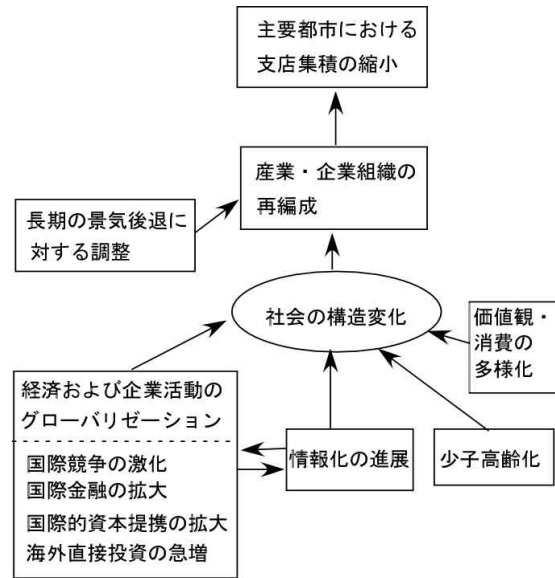
그 결과 이러한 도시에서는 도시의 전 종업원 중에서 지점 종업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0~20%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지점 종업원 비율이 제조업 종업원 비율을 웃도는 도시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지점이 도시 경제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되어 있다.

그러나 지점의 집적량은 1990년대 상반기까지 계속 증가했지만 1990년대 후반이 되어 처음 감소를 나타내기에 이르렀다. 그 요인으로는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 및 경기후퇴와 동시에 소자녀화, 고령화, 글로벌라이제이션 및 고도정보화에 수반하는 사회변동에 대응한 기업의 구조조정(restructuring)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방 주요 도시에 있어서의 지점 집적의 축소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구조적 현상이라고 이해된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의 지점 집적에 의존한 중심성의 증대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을 도시 시스템의 구조와 관련지어 해석하면 도쿄를 정점으로 지방 중추 도시, 현청 소재 도시, 지역 중심 도시가 계층적으로 늘어서는 구조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종래의 도시 시스템의 구조를 대신할 수 있는 도시 활성화의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第9図 主要都市における支店従業員の变化
Changes in the number of employees in branch offices
in major cities
Source: Japanese Census of Establish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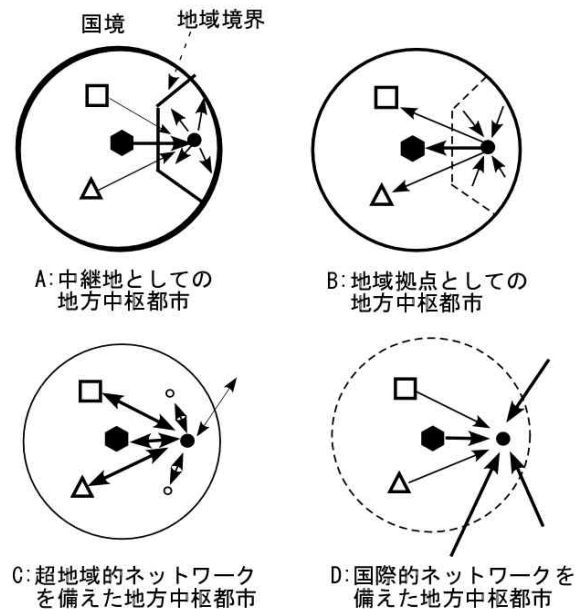


第10図 主要都市の支店集積の縮小の構図

Structural figure of the reduction in agglomeration of branch offices in major cities

2. 도시 네트워크의 타입과 형성 주체

도시간의 결합 관계에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있다. 또 테리터리에 묶인 결합과 테리터리에 수반되지 않는 결합이 있다



第11図 都市間結合のパターン

Types of connection of cities

대기업의 지점 배치를 통한 도시간의 결합 관계는 테리토리를 강화하며 도시의 계층 관계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런 종류의 도시간 결합이 향후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거기에 대신하는 결합 패턴으로서 테리토리를 수반하지만 도시간의 계층적 관계를 수반하지 않는 구조를 상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방 블록내의 지역 기업이 성장하여 사업 확대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지방 중추 도시에 사업 활동의 거점을 배치하고, 거기에서 전국으로 영업을 전개하는 모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지방 중추 도시는 지방 블록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완수하게 된다. 대기업의 지점 배치는 지방 중추 도시에 중계지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었지만, 이 경우에는 일종의 Gateway 기능 혹은 접합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방 중추 도시에 입지하는 대학 안에는 지방 블록 전역으로부터 학생을 모아 졸업생을 전국에 내보내는 대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학도 이런 종류의 결합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테리토리 및 계층적인 관계를 수반하지 않는 도시간 결합을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국내와 세계의 두 개의 공간 스케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적당하다. 전자는 지방 중추 도시, 현청 소재 도시 등에 소재하는 기관이 중심이 되어 광역인 수평적 결합을 형성하는 경우이다. 산업 단체 혹은 NPO등이 공동된 목적 혹은 이해로 제휴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이런 종류의 결합이 이루어진다. 또 이벤트를 개입시킨 교류 등에도 이런 종류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진다. 후자는 국경을 넘은 글로벌적인 수평적 결합을 가리킨다. 자매 도시 제휴에 의한 도시 네트워크 등이 가까운 사례이다. 그 외에도 대학의 국제 학술 교류, 및 국제적 NPO의 활동 등도 이런 종류의 네트워크로 여겨진다.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의 도시간 결합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모두 도시의 활력 유지에 유효하다. 계층적 도시간 결합에 종래와 같은 확대를 기대할 수 없지만, 향후에도 도시간 결합의 주요한 구성요소인 것에는 변함없다. 도시의 교통·통신 인프라는 이런 종류의 결합에 의지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시 진흥의 관점에서는 계층적 도시간 결합의 stock 위에 비계층적인 도시간결합 부분을 확대해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각각의 도시 네트워크를 확대·강화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또 네트워크 형성에 필요한 정책은 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각각에 필요한 정책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2> 도시간 결합 패턴의 유형별 추진 주체와 지원책

(Actors connecting cities and the supporting policies)

도시결합 유형	특징	주체	지원책	
			하드적인면	소프트적인면
A	계층적인 도시간 결합과 지방 블록 내의 지역적 관계를 함께 강화	전국적으로 사업 활동을 전개하는 기관 : 대기업, 중앙 부처의 파견 기관 등.	대도시와 지방 블록내의 도시를 묶는 교통 인프라의 정비. 오피스, 물류 시설을 수용하는 공간의 창출	외래 기관을 받아 들여 그것을 활용하는 의식의 향상.
B	지방 블록내의 지방도시가 지방 중추 도시를 개입시켜 전국의 주요 도시와 결합하는 패턴.	지방 중추 도시를 거점으로 하여 전국 혹은 광역 전개를 도모하는 지방 기업, 대학 등.	지방 중추 도시의 교통·정보 인프라를 시작으로 하는 도시 기능의 향상을 도모.	지방 기업의 지방 중추 도시 진출을 촉진하는 커뮤니케이션 형성
C	지방 중추 도시가 중심이 되어 형성하는 영역에 수반되지 않는 수평적 광역 및 지역적 네트워크	광역적 전개를 진행시키는 현지 산업, 시민 단체 (NPO) 등		인적 교류의 촉진 및 사업 활동에 대한 자금, 정보 및 지식 제공 등의 지원.
D	국제 스케일의 도시간네트워크	자치체, 대학, 시민 단체 등.	해외 항공로의 개설, 활동 장소의 창출(국제 센터, 문화 홀, 회의장 등). 경관 정비.	국제적 이벤트의 개최(상품 전시회, 음악제 등) 외부인에 대한 하스피탈리티의 육성, 도시의 역사, 문화의 재평가.

VI. 결론

일본 지방도시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 속에서 도시의 경제 기반을 유지하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 국가의 정책을 활용한 여러 정책이 행해지고 있고, 그 중에서 몇몇 아이디어 및 조직 만들기는 주목받고 있다. 또 도시 시스템의 구조적 관점에서 볼 때, 일본 지방도시의 종래의 계층적 결합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도시

결합을 형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지방도시에 대해서는 외부 자본의 유치와 경제성장에 의존하는 지역 진흥에 큰 기대를 거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상, 다양한 정책을 유연하게 실시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정책적으로 임하는 과제를 인식함과 것과 동시에, 도시 내외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탐색하여 활용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